

부문별 주요 기사

2월 1일~2월 28일

| 대내경제
|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2월 1일~2월 28일

대내경제 102

<북한 장마당>

북한 장마당 수 작년에 비해 증가
식량 연료비 등 시장 물가 일제히 상승
주민들, 위안화 보다 달러·유료 선호 추세

<보건·사회>

국제적십자사, 북한 신종독감 확산 방지 위한 긴급기금 투입
북 주민, 당원증에 대한 관심 감소

대외경제 105

<대북제재>

대북 강경기조 이어가는 일본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해상무역제재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북중관계>

지난해 북중무역 감소
중국, 북한과 새로운 무역특구 추진

<북러관계>

北 IT관계자 러시아를 거점으로 활동
러시아 내 北노동자 송환, 석탄수출 중단
북한-러시아 교역 증가추세

대내경제

<북한 장마당>

데일리 NK(2.1, 2.27), RFA(2.3, 2.15, 2.17, 2.20), 중앙일보(2.18), 세계일보(2.24)

북한 장마당 수 작년에 비해 증가

올해 북한의 장마당 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보도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에 따르면 2월 현재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북한 공식시장 수가 총 482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2017년 8월에 집계한 468개 보다 증가한 것으로 임시 시장, 길거리에 조성된 장마당 수까지 합치면 그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내 시장은 전국적으로 최소 26개가 새로 지어졌으며, 109개 시장이 더 큰 규모로 확장·재건설 된 것으로 확인됨. 북한 시장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경제가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금융, 임대, 고용 시장이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전함.

식량, 연료비 등 시장 물가 일제히 상승

식량과 연료비 등 북한 시장 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는 보도임. 식량 물가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월에 들어 주요 곡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함. 1월 말 청진시 수남 장마당 기준으로 입쌀 1kg은 북한돈 4,500원, 옥수수 1,900원, 밀가루가 3,600원에 거래 되었으나 2월 들어 각각 kg당 5,300원, 2,400원, 4,400원에 거래 되었다는 소식임. 모든 곡물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비교적 싼 가격의 밀가루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 밀가루 부족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이어 북한의 2월 시장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음력 설명절과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임. 북한 당국이 선물 생산에 필요한 식량을 대량으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일제히 올랐을 것이라는 추측이며,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국제사회에 이어 중국의 경제제재가 본격화 되면서 장마당에서 생필품 거래는 거의 끊기고 일부 식량만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여파로 한때 기록적인 오름세를 보였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월보다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됨. 2월 중순경 북부지방 기준으로 휘발유 1kg은 18,225원, 디젤유 1kg은 10,800원에 거래됨. 이는 지난달 가격 보다는 떨어진

것이지만, 본격적으로 대북 제재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3월 경 8,000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내 연료값 상승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비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일반주민들의 운송비와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임. 지난 1월 농장에 군량미를 가지러 가는 한 군 부대가 차량을 준비하지 못해 목탄차나 소달구지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전함.

주민들, 위안화 보다 달러·유로 선호 추세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달러나 유로화를 선호하여 중국인민폐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임. 평양에서는 고위층일수록 특별한 날에 달러현금을 선물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국경도시의 장사꾼들도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짐. 북한 주민들의 달러나 유로화 선호 배경에 대해서 한 대북 소식통은 그 이유가 분명치는 않지만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함. 실제로 외화 암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안화와 달러 환율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월 현재 기준으로 미 1달러는 북한돈 8~9,000원에 거래되는 반면 1위안은 북한돈 1,200원 정도에 거래된다는 소식임. 이에 화폐 가치가 높게 여겨지는 달러, 유로, 엔화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설명임.

<보건·사회>

VOA(2.1, 2.13), 뉴시스(2.2), 뉴데일리(2.13), RFA(2.16)

국제적십자사, 북한 신종독감 확산 방지 위한 긴급기금 투입

국제적십자사(IFRC)가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A형(H1N1)신종독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난구호 긴급기금을 투입한다는 보도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3일 사이에 북한주민의 17만 8천명 이상이 독감증세를 보였고, 4명이 사망하는 등 북한 전역에 신종독감이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당시 국제적십자사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IFRC 재난구호긴급기금 투입 여부를 위한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음. 국제적십자사 아시아 지역사무소장에 따르면 북한에서 공공보건 안전조치가 필요한 약 37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 30만 스위스 프랑, 미화로 32만 4천 달러를 투입할 것이며, 이 자금은 보건 요원과 노인, 어린이,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 당원중에 대한 관심 감소

최근 북한당국이 노동당 당원들에게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중앙위원회의 내부지시가 전국의 지방당 조직들에 하달됨에 따라 하부 조직별로 재정비 작업을 착수 했다고 함. 그러나 소식통은 북한 당원들의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졌으며,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당원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전했음. 특히 당원 중에서는 북한 대부분의 기관 기업소들이 일거리가 없어 국가에 바칠 자금마련과 생계를 위해 자체로 돈벌이에 나서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적 이념을 강화하라는 말이나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하였음.

외화별이회사나 무역관련 기관 역시 비당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실제 최근 기관구성원들 중 당원비율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해 소식통은 외화별이회사들도 소속인원 중 당원 수에 따라 당세포를 조직해야하고 당 생활총회를 매 주마다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특히 당원들이 상부에 조직생활을 보고하여 회사의 내부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경제

<대북제재>

내일신문(2.14), 경향신문(2.24), 동아일보(2.8, 2.26), 매일경제(2.19), 아시아경제(2.27), 조선일보(2.21, 2.26), 중앙일보(2.26), 한국일보(2.25), RFA(2.14), VOA(2.12, 2.14, 2.23)

대북 강경기조 이어가는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7일 회담을 갖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의 평화공세를 한미일 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로 규정하고, 비핵화 실현까지 대북 압력 강화를 유지해나가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

일본 정부는 20일 을 들어 세 번째로 북한의 해상 밀수가 의심되는 현장을 포착한 사진을 공개하고, 이를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며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임. 또한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의 환적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고, 제재 이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에는 외무성 산하에 '유엔제재실'을 설치하기로 함.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해상무역제재

미 재무부는 9일 북한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계좌 접근을 불허하고, 새로운 계좌 개설과 유지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함. 북한은 2011년부터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되어 오고 있음. 13일에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것으로 드러난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을 제재하여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함. ABLV 은행은 조치 직후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유럽중앙은행이 지급 정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로 제 3국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첫 사례가 임박한 것으로 예고됨.

올림픽 폐막식을 이틀 앞둔 23일 미 재무부는 북한의 해상무역 봉쇄를 겨냥해 총 56개의 단체·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의 제재를 발표. 북한이 현시점에서 해외 유류 밀수 등에 사용 가능한 모든 선박들이 제재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 3국 선박과 기업들도 제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의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으로 평가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실패할 경우 '거칠고 불행한' 2단계로 가야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수색하는 등 사실상의 '해상차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짐.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독자 제재 명단에 대한 안보리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힘.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수출을 봉쇄한 데 이어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있다고 밝힘.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통해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보고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노동자는 수 백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짐. 반면 러시아 연해주정부는 수산물 가공 산업 등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 수요가 높으므로 연말까지는 이들의 체류를 허락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함.

<북중관계>

연합뉴스(2.19), 서울경제(2.22), RFA(2.28)

지난해 북중무역 감소

북한 전문 프리미엄 매체 NK프로는 2017년 대중무역 적자는 약 17억달러(약 1조 8,292억), 대중수입은 33억달러, 수출은 16억달러로 나타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함. 북한의 수출 감소원인은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수출이 제한된 북한 산광물에서 찾을 수 있음.

한편, 중국에서는 대북제재로 중국-북한을 오가던 화물 운송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임. 빈차로 운행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 화물차들이 하루 평균 20대 이상 중국에 들어오고 있다고 단둥 무역업자는 전함. 단둥-신의주를 오가는 북한 측 화물차는 주로 대성·강성무역, 신의주 연운 등 3개회사 소속이며, 현재 소속된 100여대 화물차 중 20여대만 운행중에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중국, 북한과 새로운 무역특구 추진

중국 지린성 훈춘시와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 인접한 류다도에 변민호시무역구 설치가 추진중임을 훈춘시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함. 북중접경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교역을

위해 매일 1인당 8,000위안(약 135만원) 내에서 면세혜택을 제공하는 무역특구임. 류다도 호시무역구는 지난 2015년 10월 단둥에 처음 설립된 이후 두 번째로 설립 논의중에 있으며, 이번 호시무역구에 대한 사업은 북한 경원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에서 2016년 6월 먼저 제안했다고 함. 직접 훈춘시(市)가 투자에 참여하지 않고 홍콩기업과의 협력을 주로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올해 6월 건설을 계획 중에 있음.

〈북러관계〉

연합뉴스(2.7), VOA(2.7), news1(2.19), RFA(2.21)

北 IT관계자 러시아를 거점으로 활동

북한의 IT 관계자들이 지난해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교토통신의 보도임. 5~7명의 관계자가 인터넷 관련 사업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한편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러시아 당국이 이들이 움직임을 관찰 중이라고 함.

러시아 내 北노동자 송환, 석탄 수출 중단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2397호)를 이행하기 위해 러시아 지방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매년 러시아가 북한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90%가 단기 노동비자인데, 주로 극동지역의 건설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극동지역 건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임. 북한 노동자들은 월 평균 500달러를 받는데, 이는 러시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과도 같다고 함. 한편,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이 발표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하루 10~12시간을 근무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함. 또한 10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한 상납금(265달러→530달러)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임금의 7%에 불과하다는 보도임.

북한-러시아 교역 증가추세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의 대북수출액이 7,420만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증가했다는 RFA의 보도임. 2013~16년 감소세를 보인 북한-러시아 전체교역 규모가 2017년 소폭 증가함(전년대비 1.4% 증가). 러시아 대북수출 상위 1위 품목은 광물연료로 전체 수입의 약 83%차지함. 이어서 동물성유지, 수산물, 밀가루, 목탄 등이

순위에 올랐음. 러시아의 대북수입 품목은 의류(117만 4,496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2%를 차지함.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인해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 산 석탄수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보도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RFA(2,12, 2.15, 2.28), VOA(2.23)

아래 표는 2월 한 달 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 단체 (국가명) | 지원일 | 지원품 | 지원액 혹은 지원량 | 비고 |
|---|----------------|------------|--|---|
| 국제적십자사 (IFRC) | 2018년 (미정) | 지원금 | 30만 스위스프랑 (약 32만달러) | 북한에 유행중인 A형 (H1N1) 신종독감 발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구호 긴급기금'임. |
| 조선 익스체인지 (싱가포르 민간단체) | 2017년 한 해 | 교류 및 교육 지원 | 직업연수회 19회 | 2017년 북한인 330명을 포함해 지난 8년 동안 2천 여명에게 사업·기업경영 에 관한 연수 제공 |
|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프랑스 국제 구호단체) | 2018년 1월 시작 | 지원사업 | 색량지원 사업 (향후 40개월 동안 약 80만달러 투입예정) | 평안남도 115개 보육기관 의 3천여명이 혜택 대상 |
|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 2017년 12월 | 식량지원 | 식량 1,703톤 | 북한 74개 시, 군 내 임산 부와 수유모, 어린이 등 취 약계층 57만 8,000여명 에게 식량지원 |

기사 원문 리스트

- [2018.2.01] “평양시 부동산 업자들, 분양금 선불로 받고 건설 나서” (데일리 NK)
- [2018.2.01] 국제적십자 “북한 신종독감 감염 11만여명”...1주일새 3만여명 추가 감염 (VOA)
- [2018.2.02] 北 신종독감 환자 11만여명...1주일 새 3만여명 증가 (뉴시스)
- [2018.2.03] 북 공식 시장 꾸준히 증가, 480개 넘어 (RFA)
- [2018.2.07] 러시아,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시작...안보리 결의 철저 이행 (연합뉴스)
- [2018.2.07.] 북한 해외근로자 실태 보고서 “한달 생활비 27달러” (VOA)
- [2018.2.08] 펜스-아베 “北 미소 외교에 눈 빼앗겨선 안돼” (동아일보)
- [2018.2.12] 미 재무부, 올해 첫 북한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7년 연속 최고 수위 유지 (VOA)
- [2018.2.12] 국제적십자사, 북 신종독감 방지에 32만달러 긴급투입 (RFA)
- [2018.2.13] 국제적십자 “북한 신종독감 확산 막기 위해 32만 달러 투입” (VOA)
- [2018.2.13] 북한 신종플루 환자 최소 17만 8천... 국제적십자 긴급지원 (뉴데일리)
- [2018.2.14] “중동지역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 수백 명에 불과” (RFA)
- [2018.2.14] 미 ‘포괄적 대북 해상차단’ 검토...강력한 제재·압박 (내일신문)
- [2018.2.14] 미 재무부, 북한과 거래한 라트비아 은행 제재...2005년 BDA와 같은 조치 (VOA)
- [2018.2.15] 북, 설·김정일 생일 겹쳐 물가 상승세 (RFA)
- [2018.2.15] 프랑스단체, 북 북창 양어장에 기술지원 (RFA)
- [2018.2.16] 북 주민, 당원증에 관심 줄어 (RFA)
- [2018.2.17] 대북제재 탓, 북 연료비 여전히 비싸...군대도 타격 (RFA)
- [2018.2.17] 北 휘발유 가격 하락세...“지난주비 3000원 떨어져” (데일리 NK)
- [2018.2.18] 대북제재 영향 北 연료값 여전히 고공행진...군대도 타격 (중앙일보)
- [2018.2.19] 日 교도 “北 IT관계자, 러시아에 거점...외화벌이 추정” (news1)
- [2018.2.19] 러시아 연해주정부 “北노동자 연말까지 계속 일할 것” (매일경제)
- [2018.2.19] 대북제재 중인데...북중접경에 두 번째 ‘호시무역구’ 추진 (연합뉴스)
- [2018.2.20] 대북 경제제재 비웃듯 중국, 두만강 류다도에 새로운 무역특구 추진 (조선일보)
- [2018.2.20] 북주민, 중국인민폐 대신 달러화 보유에 몰두 (RFA)
- [2018.2.21] 북·러시아 교역 4년 연속 감소 끝에 증가세 (RFA)
- [2018.2.21] 日정부, 北 해상밀수 사진 공개...대북압력 강화 의지 (조선일보)
- [2018.2.22] 북한,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 늘어나...“대북제재 효과 징후” (서울경제)
- [2018.2.23] WFP 지난해 대북 식량지원, 21년만에 최저 (VOA)
- [2018.2.23] 헤일리 대사 “대북 압박 성과내고 있어...이제는 노동자 곁을 차례” (VOA)
- [2018.2.24] 미국, 북한 해상차단 위한 사상 최대 독자제재 발표...트럼프 “효과 없으면 2

단계” 위협 (경향신문)

- [2018.2.24]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 장마당 경기 급랭 (세계일보)
- [2018.2.25] 라트비아 ABLV, 미국의 대북 거래 제재로 사실상 파산 (한국일보)
- [2018.2.26] “일본 정부, 한미에 북한 선박 환적 감시 분담 요청” (동아일보)
- [2018.2.26] 트럼프 “北제재 실패 땀 거칠고 불행한 2단계로” (조선일보)
- [2018.2.26] 올림픽 이후 예상했는데…제재 서두른 美, 한국에도 압박 (중앙일보)
- [2018.2.27] 러시아, 美 새 대북제재 비판…‘시점·내용·방식 모두 문제’ (아시아경제)
- [2018.2.28] “8년 간 북 주민 2천여명 서구식 경제·경영 배웠다” (RFA)
- [2018.2.28] “북·중무역 급감으로 북한 화물운수업체들 경영난” (RFA)